

야당 지도부 연일尹대통령·여당 '압박'

이재명 "말뿐이 아닌 민생 회복 긴급조치 제안"

홍익표 "22대 법사위·운영위원장 민주당 가져야"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연일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 대한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천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천억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와 입장 발표에 대해선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최대의 야당 의석수는 국회를 국정 운영의

한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은 지난 2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에 입법권

력까지 여당에 내준다면 대한민국에 큰일이 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만과 독선에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입장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지는 분들도 계산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국회의장 경쟁 가열...조정식-추미애 2파전에 '5선 의장론'도 대두

趙 "젊고 이재명 호흡 맞출 의장 필요" 秋 "혁신의장 역할 거부안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 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2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 임기로 선출해왔다. 당내 경선에서 이진 후보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돼왔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라

면 일단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조정식 사무총장(61)과 추미애(66) 전 법무부 장관의 '2파전' 구도가 만들어진 양상이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올라 당내 최다선이 된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국회의장직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계 출신인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며 당내 대

표적인 친명계로 입지를 굳혔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며 압승을 견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이대표와 총선 개혁 공천을 이뤄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며 "22대 국회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젊고 개혁적이며, 이대표와 당과 호흡을 맞출 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총선 전부터 6선에 성공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온 추 전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 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거부하지 않겠다"며 "총선의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선(選)과 나이, 출마 의지 등을 고려해 조 사무총장과 추 전 장관이 경선을 치르고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직을 나눠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서서히 대두되는 '5선 의장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여온 만큼 거대 양당의 협치를 잘 이끌 '일하는 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5선 가운데 도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계파색이 얽은 한 의원은 "선수와 나이란 고려해 뽑는 의장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꼭 대선 중 뽑아야 하는 건 아니니 여당과 중재를 잘 이끌만한 사람을 뽑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5선 후보군으로는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된다.

민주, 원내대표 내달 3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5월3일 선출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차기 원내대표가 원(院)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다만, (21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까지는 홍익표 현 원내대표가 맡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는 원내대표를 매년 5

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선출된 현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전임 박광운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통상 3~4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인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박찬대·송기현·조승래·진성준·한병도 의원(3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새로운미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전환

이낙연 "비대위위원회에 이석현 전 부의장 지명"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17일 당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원장은 내가 지명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낙연·김종민·홍영표 공동대표와 양소영·김영선·신경민·박원석·박영순·신정현 책임위원 등 당 지

도부 전원이 물러나게 된다. 이어 그는 "나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이 전 부의장은 18일 오전까지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이 전 부의장을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으로도 수고한 분"이라며 "비대위는 당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인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대통령실 "박영선·양정철, 검토된 바 없어"

대통령실은 17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색염료 함유